

온누리 안은행, 생명나눔전문강사 15일까지 모집

사단법인 온누리 안은행(이사장 전석진)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생명나눔전문강사'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장기기증과 웰다잉(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웰다잉 관련 민간자 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강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교육과 강연을 통해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기기증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온누리 안은행은 이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생명나눔 교육과 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온누리 안은행 관계자는 "생명나눔은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실천"이라며 "경험과 공감을 바탕으로 생명나눔 문화를 전파할 뜻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자는 온누리 안은행(063-255-1400)으로 문의하면 되며, 서류 심사 후 선발된 강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 강의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오만호 기자



남원시보건소,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나서

남원시보건소는 2025년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취약계층 7,000여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방문건강 집중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리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방문사업 인력 50명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단을 구성,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대상자의 인부 확인 및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신속한 관리와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최소화하고, 무더위 쉼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홍보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체크와 냉방기 작동 여부 등도 병행하여 확인하고 쿨토시 등 폭염대비 물품을 지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천동농협,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개강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 6월 5일부터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 자격취득 직업교육'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결혼 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직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은 총 12주차에 걸쳐 진행되며, 전문 바리스타 강사의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통해 국가공인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교육장소는 설천 눈꽃내 문화의집이며, 실습 장비와 교재는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커피 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광활면 주민자치위, 사랑의 두부나눔 위한 콩 식재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준수)가 9월 자치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두부 나눔행사'에 사용할 두부 제조용 콩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사랑의 두부 나눔행사'는 주민자치위가 직접 수확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관내 750여 세대와 마을 경로당 등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고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행사다.

콩 심기를 비롯해 친환경농약 살포, 제조작업, 콩 순차르기, 수확 등 행사를 위한 일련의 모든 작업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식재한 콩을 수확하면 연말에 '사랑의 두부 나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준수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성들여 가꾼 먹거리를 관내 주민들과 경로당 및 취약계층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더불어 사는 광활면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소년의 댄스로 전한 통일의 염원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 '제12회 전국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 성료

청소년들이 춤으로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협의회(회장 하재관)는 지난 7일 오후 1시, 전주시 송천동 세병공원 특설무대에서 '제12회 전국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온 행사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통일 담론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이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42개 청소년 댄스팀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심사 기준은 △통일 표현 △작품성 △예술성 △적극성 △무대 매너 등 다각도로 평가됐다.

대상은 서울에서 참가한 '웹보스크루' 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전통의상과 국악 기반 음악, 상징적인 소품을 활용해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춤으로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보스크루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상과 함께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상했다.

금상은 '언더컨트롤', 은상은 '쌍둥이', 동상은 '제스



티크루와 '파이널리티', 장려상은 '벨로', '비엔즈', 'IDA' 팀이 각각 수상했다.

대회 현장에서는 본선 무대 외에도 K-POP 커버댄스, 램덱플레이 댄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한국전쟁 75주년을 기념하는 태권 퍼포먼스가 무대에 올려져, 청소년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하재관 전주시협의회장은 "청소년 여러분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무대는 단순한 춤의 경연을 넘어, 우리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김제농협 이정용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김제농협 이정용 조합장이 지난 5일 농협중앙회 정례조회에서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의 핵심가치를 충실히 수행해 모범이 된 조합장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농협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하며 '희망농업'과 '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데 탁월한 업적을 보인 조합장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정용 조합장은 혁신적 경영과 농가의 실익 증진,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통해 농협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 조합장은 임직원 및 조합원과의 소통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의 혁신과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졌다. 그 결과 김제농협은 상호금융 예수금 4,000여 원 돌파, 2023년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 수상 등 뛰어난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콩 정부수매 6,730톤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벼 계약매매 7,907톤 등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출하산금품 무이자 지원과 공보함료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조합원 복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출산축하금과 생일선물, 장학금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 조합원을 위한 다문화여성 대학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정용 조합장은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병원, 환자·내원객 위한 행복콘서트 성료

전북대학교병원이 종근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하는 2025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오페라콘서트'를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12시부터 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고생하는 직원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와 가족, 내방객,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는 파베라그림 카르디오, 소프라노 정하은, 테너 김재민, 뮤지컬배우 유소리 등이 출연해 감동과 힐링의 무대를 펼쳤다.

공연팀은 △Angel △Il Mondo △The Prayer △Mein herr Marquis △Din ist mein ganzes Herz △La donna e mobile △Part of Your World △Popular △Grande Amore △꽃향기 등 친근한 오페라와 뮤지컬, 영화 OST 등 다양한 음악에 해설을 더해 멋진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종근당이 주최하고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전국의 병원을 찾아가 투병중인 환



자와 가족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아름다운 음악과 멋진 무대를 선사해주신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대북정책·안보환경 대응... 정읍 민주평통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통일·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감동환 협의회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내외의 환경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 지지 기반을 확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감동환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읍시협의회는 다양한 지역 통일 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는 헌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 자문기구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수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명권 전주시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송천동)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휴비스 백승덕 공장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전주시의회 온혜정, 전윤미 의원을 지목했다.

최 의원은 "2021년도 전주시 인구가 66만에 가까웠지만 현재 인구 추이를 살펴봤을 때 63만도 위협한 상황이다"며 저출산·고령화·청년인구 유출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이상열 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열)가 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상열 본부장은 한국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의 지목을 받았고, 다음 참여자로 임실군 체육회 김병이 회장을 지목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축협, '스마트 전자경매시장' 준공식

남원축협은 지난 5일, 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시장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스마트 가축경매시장'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전했다.

이날 가진 스마트 가축경매시장 준공식에는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이 참석했으며, 경매시장은 약 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마련된 것으로 가축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고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든 원격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사용자들은 더 이상 직접 시장에 방문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도동동, 작은파도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선자 등장, 민간위원장 김화만)는 9일 '1일 1가구 소통행정' 활동의 일환으로 '작은파도' (대표 이은서)를 '착한가게' 44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란 매달 일정 금액(3만 원 이상)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가게를 뜻하며,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이은서 대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에 보탬이 되는 가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